

친수공간으로서의 워터프론트 개념과 활용방향



김정은 ▶▶
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주임연구원
kjeongeun@gmail.com



박성제 ▶▶
미래수자원환경연구소 소장
psungje@gmail.com

있는 용어로 수변공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워터프론트의 내용적 측면을 포괄하는 전문용어로써 워터프론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워터프론트가 1980년대 이후 과밀화된 도시지역의 재개발 대상지라는 개념을 내포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선희, 2003: 5-7). 따라서 워터프론트는 자연상태의 수변공간이라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상태의 개발대상지로서의 수변공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워터프론트의 개념정의

워터프론트(waterfront)의 사전적 의미¹⁾는 ① 물가의 땅, ② (도시의) 호안(하안, 해안) 지역, ③ 선창가, 부두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²⁾. 광의적으로는 물과 직접 연결된 모든 종류의 땅을 뜻하지만 범위를 축소하면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에서의 땅을 지칭한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서울 시내의 한강변에 있는 땅보다는 인천 시내 해안 부둣가에 있는 땅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굳이 담수와 해수의 여부는 구별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인접한 강가, 바닷가, 호숫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워터프론트를 대체할 수

2. 수역에 따른 워터프론트의 종류

워터프론트는 연결된 수역(水域)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수역은 그 종류에 따라 크게 바다, 하천, 호소로 구분되며 그 특징(여정태, 1997: 35-3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바다에 접한 워터프론트는 특히 seafront라고 하며, 해안이 가지는 넓은 공간적 특성 때문에 그 규모와 활용의 폭도 매우 다양하다. 워터프론트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사실상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구항만의 용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안의 수변공간은 워터프론트라는 개념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seafront는 과거에 부두

1) http://eedic.daum.net/dicee/search_result_total.do?type=ee&q=waterfront.

2) 영어로는 ① land abutting a body of water, ② the part of a town or city that abuts water, especially a district of wharves where ships dock 등으로 정의된다. 중국어로 水邊이나 濱水區, 일본어로 水邊地區, 한국어로 해안지역으로 번역된다는 설명이 이채롭다;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waterfront>.

와 항만 등으로서 이미 도시화가 진전된 인위적인 요소와 바다라는 위치와 경관이 주는 자연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울리는 이국적인 다양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가 탁월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seafront는 대체로 개발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상업적인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바다 주변에 위치하므로 해일, 만조 등의 기상적인 피해에 주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천은 시민에게 가장 친근한 수역으로 접근성이 좋고, 도시민의 직접적인 이용과 관심도가 매우 높다. 도시하천에 접한 워터프론트는 riverfront로 부르기도 한다. 하천은 과거에는 치수와 이수 관리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이 대두하면서 하천 본래의 조절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천관리의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도시하천에 대한 시각적인 친자연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하천은 도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시하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환경친화적으로 하천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워터프론트는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도심의 새로운 녹지공간과 휴양공간으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도시하천은 수변공간이 협소하여,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으며, 토지구역 뿐만 아니라 이수과 치수, 수질 등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수역의 문제가 난해하다.

호소의 워터프론트는 특별히 lakefront로 부르기도 한다. 호소는 폐쇄형 수역으로 수질오염을 야기하기 쉬운 지형이기 때문에 워터프론트의 활용에 있어서 수질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실제로 오염부하가 큰 대규모의 개발은 지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목적댐 건설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시설위주의 개발의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소규모의 낚시, 수상스포츠 등의 레저산업이 자생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또한 다목적댐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지역을 중심으로 녹지와 공원개념의 휴식공간을 조성

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3. 워터프론트의 친수기능

친수(親水)를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에서 물과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간주한다면 친수공간은 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인간이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친수활동을 위한 공간(한국토지공사, 1997: 30-31)으로 판단된다. 물과의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친수공간에 대한 해석이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인 이용 측면이 아직 잔존하여 대부분의 워터프론트의 개발계획에서 친수공간이 관광이나 레저산업의 대상지로 이해하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바다, 하천, 호수 등 물환경에 보다 쉽게 다가가서 느끼고 즐기면서 이용한다는 인간중심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1980년대 말에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이 등장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친수에 대한 최근의 흐름은 친수공간에서 수변식생과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보존 및 복원하고 자연환경을 회복하며 쾌적한 생태적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인간이 건강한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사회(society living with healthy natural systems)를 영속적으로 지속시키는 도시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문제에서 환경의 다부문(inter-sectoral)적 특성과 세대간의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친수환경도 생태, 환경, 경제, 사회, 기술적인 접근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연결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워터프론트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태중심의 수변공간의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연에 대한 정서적인 체험을 통해 친수성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워터프론트 지역에 대한 개발

관점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³⁾(이종훈, 1997: 277-279).

4. 워터프론트의 특성

4.1 입지적 측면

워터프론트는 수변(水邊)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역의 수질, 수위, 생태, 계절 등의 변화가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즉, 워터프론트는 바다와 하천 등에 직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과 개발에 앞서 지형, 수역 현황, 경관, 지반, 기후 등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이종훈, 1999: 277-279).

워터프론트의 위치는 인접한 수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수변생태계의 건강성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워터프론트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워터프론트 자체가 수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은 물론이며, 나아가 도심에서 수역에 미치는 영향의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추구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워터프론트의 개발에 있어 지형의 인위적인 변형을 지양하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개발을 시도하는 등의 환경 친화적으로 접근하여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2 문화적 측면

수역은 식량의 생산지, 교통로, 시장, 여가장소 등의 기능으로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교류하는 공간이지 도시발전의 역사적 배경이 된다. 워터프론트의 광대한 육역(陸域)과 수역(水域)이 끝나거나

시작하는 즉, 육역의 기능과 수역의 기능의 역할이 교호하는 장소로서 독특한 공간적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허재완 등, 1997: 5-7). 특히 도시민에게는 개방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워터프론트에 대한 기대감은 도시민의 보편적인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3 도시계획적 측면

워터프론트는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토지 중 하나이다. 도시성장의 자원이 되었던 워터프론트 지역은 도시가 성장에 따라 변화된 산업구조에 의해 워터프론트 지역의 용도 또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임해 도시의 항만지역에서는 임해형 산업이 주로 입지하던 구항만은 도시개발의 넓은 유희지가 된다(이종훈, 1999: 283-285). 치수와 이수 기능에 한정되었던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도시 재개발 계획에 포함하여 하천복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결국 워터프론트는 대도시 지역의 주거, 교통, 공원, 용지 부족 등 도시 기능의 물리적인 고충뿐만 아니라 범죄 등 갖가지 도시 문제를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완화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4.4 경제적 측면

워터프론트에서는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정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통해 도시민은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여행, 문화를 즐기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축적되어진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하기 위한 활동이다. 특히 최근 도시민의 여유시간이 늘어나는 반면에 일상업무는 고도화되고 복잡화되어 대부분의 도시생활자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 직면하고

3) 2007년 2월에 개최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대안검토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상업적 활용에 치우친 초안에 대해 친수공간의 확대를 강조한 것도 달라진 워터프론트의 친수공간으로서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물론 개발의 현장에서는 친수공간의 개념이 '수변형 도시공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생태중심의 수변공간 복원'을 의미하는지의 정리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욕구는 워터프론트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것이다.

워터프론트 지역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매력이 매우 높다. 외국에서는 워터프론트의 재개발을 통해 도심과는 다른 차별화된 이미지의 상업 업무, 거주, 레저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 경기를 회복한 예도 많다(이영석, 1991: 19-33). 특히 항만지역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와 넓은 유희지는 다양하면서도 일관된 계획이 가능하게 하여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워터프론트의 경제적인 기능은 상업시설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주변지역의 쾌적함이 증진되면서 간접적으로 인근의 건물과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도시가 랜드마크에 경쟁을 벌이는 것은 타도시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인데, 워터프론트는 그 자체로 독특한 도시 이미지가 될 뿐만 아니라 여행자와 거주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의 잠재력이 된다.

4.5 사회적 기능

워터프론트에 대한 사적인 소유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워터프론트는 공공의 장소이며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게 혜택과 피해가 편중되지 않고, 도시 전체의 공정한 목적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조성된 워터프론트는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창출해 내는 기능을 한다.

4.6 심미적 측면

워터프론트가 가진 위치와 전망은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량감을 준다. 특히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불안감을 해소

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도시의 워터프론트는 개인주의적인 도시 생활의 삭막함을 보완함으로써, 나아가 인간적인 감수성을 증진하고 도시 공동체의 결집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5. 워터프론트 개발의 역사적 흐름

워터프론트를 개발한 최초의 목적은 미국에서 공동화된 도심인접부를 재활성하는 것이었다. 도심인접부의 공동화는 도시의 제조업과 항만 관련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고 이것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1960년대 미국에서 워터프론트의 재개발은 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뉴타운의 성격으로서 해안이나 하천 보다는 작은 인공연못이나 운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 녹지 및 산책로의 정비, 중간소득 이하의 서민용 주택정비 등이 전개되었다(해양과학고실).

1980년대에 들어서 도시의 기능별 구획단위의 개선사업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인구배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 메릴랜드(Maryland)주(州)의 볼티모어(Baltimore)시(市)는 구항만의 재개발사업으로 찰스센터(Charles Center)의 업무지역재개발, 상업중심지로 육성 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이후 주택재정비를 포함한 보다 광역적인 도시의 활성화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였다. 1980년대 이후 보스턴(Boston), 뉴욕(New York), 볼티모어(Baltimore),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와 같은 항구도시의 워터프론트가 성공적으로 재개발되면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각지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유럽 및 미국의 영향을 받아 워터프론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구조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구미지역에서 지향해 왔던 개발방향보다는 페스티벌 마케팅의 관광용 시설과 주택 및 업무가 중심인 해변뉴타운 건설에 주안점을 준 개발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구미지역과 유사한 상업 기반 공급 및 지구수복형개발⁴⁾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경향이다(여정태, 1997: 44).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워터프론트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게도 항만의 용도는 대량의 화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기능에서 확장하여 산업과 도시구조의 재구축을 위한 하이테크 산업 지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해양과학교실).

6. 친수공간으로서 워터프론트

지금까지의 워터프론트의 개발은 워터프론트의 친수성을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로 연안의 공원으로 사용하거나 레저시설의 용지로 이용하는 접근방식이였다. 특히 상업적인 친수공간 조성 차원에서 워터프론트 시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접근방식은 일본의 경우에는 워터프론트 개발에 있어 수요 이상으로 거대화시킨 계획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⁵⁾.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하천의 복원에 있어서도 도시하천이 가지는 공간과 입지의 한계를 감안 하더라도 하천의 실질적인 복원보다는 하천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용도변경의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수공간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의 실체가 지금과 같은 공원화에 머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생태중심적인 복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을 워터프론트 개발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7. 워터프론트 개발의 최근 추세

7.1 수역의 다양화

워터프론트는 주로 지역개발과 도시재개발 측면에서 바다라는 매력적인 공간에 인접한 항만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중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친수활동에 대한 욕구증대와 지역개발과 도시 재개발의 측면에서 하천과 호수의 수자원을 활용하여 워터프론트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하천복원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에 친자연형 공원 건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하천과 호수의 워터프론트의 경우 공간의 협소함과 수역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감안하여 상업적인 이용 측면의 개발보다는 주변거주민들에게 도시의 활력을 주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측면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7.2 용도의 복합화

워터프론트의 용도의 복합화라는 측면은 다양한 공간이용이 가능한 바다와 접하는 워터프론트에 주로 해당된다. 특히 항만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휴식 공간 확보 개념의 소규모 워터프론트 관점에서, 점차 생활 공간, 업무 공간의 확보를 위한 중규모 워터프론트 개발을 거쳐, 도시 재개발 또는 도시 기능 확충과 같은 대규모 워터프론트 개발로 그 용도가 다변화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바다에 접한 워터프론트의 주요 대상지인 항만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초기의 휴식공간으로서 워터프

4) 기존의 기능과 시설을 존중하고 인위적 변형을 최소화하여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도시재개발 형태이다.

5) 위키피디아(<http://ja.wikipedia.org>)에서 키워드 'ウォーターフロント'으로 검색하였다.

론트 개발은 항만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소규모의 워터프론트 시설들이 들어서는 데, 완충 녹지, 산책로, 벤치, 등대 공원, 파고라, 분수대, 전망대 등이 그것이다. 항만 기능이 여가공간과 접목하여 기능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광장, 해양공원, 식당가, 업무 지구, 라군, 이벤트 공간 등 중규모의 워터프론트 시설들이 도입된다. 신항만이 건설된 경우와 같이 항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쇼펜센터, 금융단지, 정보단지, 국제전시장, 주거 및 복지 시설을 포함한 도시 기능을 분담할 대규모의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다(김학소, 2002: 57).

하천의 워터프론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친수공간으로서의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오히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하천복원의 추세가 복개 및 하상주차장 철거, 산책로 건설, 인공습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 도심공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의 회복에 따라 생태체험장, 교육장,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7.3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날 워터프론트 개발의 국제적인 조류는 단순한 개발지향의 수변부지 확보나 도시와 항만의 완충공간 확보 차원이상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수변의 심미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이나 도시 생활자에게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연자원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워터프론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친수공간에 대한 욕구와 접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워터프론트의 자연적 요소를 중시하여 주민이나 도시 생활자에게 자연과 접하는 장소로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도시별로 워터프론트에 청정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투영하여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이러한 변화된 패러다임의 단상이다.

물론 여전히 워터프론트는 공급위주, 관광수입 창출과 같은 시장 경제적인 편익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는 하지만, 점차 거주민들에게 도시생활의 매력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순수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접하고 있는 수역의 생태중심의 자연환경을 유지 또는 복원하는 계획의 확대를 유인할 것이다.

8. 워터프론트의 활용방향

8.1 도시 어메니티 증진

어메니티(amenity)는 일반적으로 쾌적성으로 이해되며 워터프론트에 있어서는 전형적으로 기대되는 기능인 친수기능이 바로 자연이 주는 쾌적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을 느끼는 모든 느낌에 대한 것으로 경관, 청정함, 안정감 등 쾌적성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이종훈, 1999: 288). 이처럼 워터프론트의 쾌적성은 매우 다양하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연을 느끼게 해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개발에 있어서도 바람의 흐름을 막는 다거나 수면에 큰 그림자를 지운다거나, 수면에 반사되는 요소를 주거나 물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등 쾌적성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양승모, 2005: 19). 워터프론트는 도시생활에서는 느끼기 힘든 심미적인 안정감과 공간적인 개방감, 로맨틱한 경관 등을 지역 주민과 그곳을 방문하는 도시 생활자에게 제공하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어메니티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메니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워터프론트에 주어지고 여기에 수역으로부터의 어메니티를 잘 살릴 수

있다면 판매의 증가와 업무능률의 향상은 약속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종훈, 1999: 288). 또한 주거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사례를 통해서도 하천복원과 해안의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주변 지가가 상승하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부동산뱅크, 2005; 해양과학교실). 또한 도시생활자는 워터프론트의 친수공간에서 오는 어메니티를 향유하기 위하여 워터프론트 주위로 몰려든다. 바꾸어 말하자면 워터프론트는 많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친수성을 살린 상업업무기능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자연경관을 파괴시킨다던지 수질을 악화시킨다면 오히려 어메니티를 감소해 초래하여 장기적인 차원의 경쟁력 저하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2 도시기능의 효율화 추구

워터프론트는 도심부에 부족한 주택과 개방공간 등 기능시설의 보충과 기반시설의 재정비와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기반정비를 위한 개발은 넓은 공간을 갖는 항만 등의 워터프론트 등에서는 지극히 유효하지만, 이 때 워터프론트의 배후지와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면 과도한 계획이 되어 버려 기존 도시지역의 구조를 왜곡시키거나 정체상태에 빠져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를 꼼꼼하게 살펴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워터프론트의 개발은 상세하게 예측하기 힘든 넓은 범위의 수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발계획도 과대해질 우려가 있다. 워터프론트의 개발은 충분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도시기능과 도시생활자의 실제 수요에 중점을 두고 워터프론트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이종훈, 1999: 291).

8.3 지역의 균형발전

최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의 문화·여가공간 확충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의 친수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친수활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작은 하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항만과 같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단일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따라서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기는 데에 워터프론트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인적, 법적,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김학소, 2002: 58). 이미 개발되어 있는 워터프론트 지역에는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워터프론트 개발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의 규모가 크며 사업기간이 길어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때로는 중앙정부의 주도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기간별로 투자가능성이 높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4 자연친화형의 친수공간

물론 워터프론트의 가장 큰 매력은 물을 이용한 독특한 레저,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데에 있다. 구미의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마리나, 보트 선착장, 혹은 해양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해양레저로는 낚시나 해수욕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구미 각국처럼 요트나 보트를 타거나 윈드서핑을 하는 장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심의 기저에

는 수역이 순수한 자연이라는 점이다.

워터프론트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의 장소로서, 때로는 문화의 놀이의 장소로서 자연생태계를 풍부하고 건강하게 지탱시켜주는 귀중한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워터프론트는 도시공간 중에서도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워터프론트 개발의 방향과 원칙에는, 도시생활자들에게 워터프론트가 가진 이러한 의미를 홍보하고, 수변공간에 대한 생태적 관심과 함께 친수공간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터프론트에 대한 개발개념은 친수공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하천형태의 복원, 생태계의 보존을 전제로, 하천다운 경관을 확보하며, 여기에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개성 있고 매력적인 휴식, 업무,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다.

9. 우리나라의 워터프론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아울러 내륙에 많은 하천이 관통하고 있어 수변의 접근성이 우수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도시하천의 복원추세가 당위적으로 인식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또한 다목적댐 인근은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상수원과 도시의 완충지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 워터프론트는 1980년대 이후 임해공단이나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이뤄졌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인천의 사례에서 보면, 1833년 개항이후 월미도, 송도유원지, 송도신도시 등 수도권의 관문항이 되어 항만중심으로 발전하였지만 현재는 항만시설주변에 공업시설들이 밀집되어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의 해안을 부산, 통영·거제, 여수·남해·사천·보성·고흥, 목포·완도, 강원, 경북, 수도권, 태안권, 변산권, 제주도의 10개 해양관광개발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마다 특색 있는 해양관광도시를 지정하여 육성하려는 계획⁶⁾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형 해양친수문화공간⁷⁾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교육적, 관광적 효과가 큰 지역은 생태관광 지역으로 개발지원하는 동시에 갯벌, 조류보호구역 등 중요한 생태지역은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 밖에는 부산 및 광양항에 대형 컨테이너중심항만 건설, 관세자유지역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고, 항만내 공간을 재배치하여 종합화물터미널 기능을 완비한 항만 종합물류단지 건설계획이 있다(한국토지공사,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도시생활과 친수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공간을 적극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항만이나 해안매립사업과 댐 건설 등 중공업위주의 개발정책에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여가수요의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과

6) 이것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해안도시를 선정하여 각종 해양전문박물관 및 해양과학관, 해상낚시공원, 해중전망탑, 해양생태공원 등의 해양관광시설 집중 지원하여 해안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거점 해양관광도시에 국립 해양박물관 및 지역별 해양과학관 건립하여, 수역시설을 연계·유치하여 종합해양관광타운을 조성하고,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한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진흥하고 요트, 해양페포즈의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 어항 개발시 소요를 판단하여 적절한 규모의 공공마리나 및 종합레저항 건립하고, 인천, 부산, 동해, 제주를 기항하는 선진국형 크루즈관광과 해상호텔산업 육성하게 된다.

7) 기능이 저하된 부두나 이용하지 않는 부지 등을 확보하여 해양전시관, 해변공원, 전망타워, 산책로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해저경관이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해중공원으로 보존·관리하며, 해저투시선 운항, 스쿠버전용 수중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요 항구도시나 어촌지역에 해상구조물을 활용한 해상낚시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댐에서의 워터프론트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도시하천복원, 연안 정비, 항만 공간 정비, 댐 인근의 공원조성 차원에서 소규모 워터프론트 시설 도입은 국가 및 지자체, 관련 공사(公社)의 노력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로 계획된 워터프론트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대부분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계획이 시설공급 위주로 계획되어 워낙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다가, 관련한 도시계획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개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복잡하여 상호간의 정보와 의견조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파제 공법의 변화 등에 한정되어 갯벌, 해수욕장, 하구연, 삼각지 등 자연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에서는 환경문제와 상충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워터프론트에 대한 정확한 수요 추정의 근거도 없이 개발계획이 남발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김학소, 2002: 58).

워터프론트의 개발은 개발과 보전, 나아가 복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대전제로 한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국토이용의 재분배와 친수공간 조성측면에서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에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창출, 친수공간의 욕구증대,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워터프론트의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의 잠재력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10. 바람직한 친수공간을 기다리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수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부하량이 커지고, 수자원이 고갈되며, 수변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동식물의 귀중한 서식공간이 사라지는 등 자연생태계

의 안정과 균형이 위협을 받고 있다. 한편, 도시는 점차 삭막하고 건조한 회색도시로 변해가고 아름답고 쾌적해야 할 주거환경도 점차 열악해져 왔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욕구와 환경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변이 갖는 아름답고 환경적인 특성을 살려 다양한 개발과 보전정책의 필요성이 더없이 강조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워터프론트의 개발에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대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차별화된 개성과 친밀감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와 접목되면서, 워터프론트는 도시의 종합적인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가 지니고 있는 수역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은 친수공간으로서 활용과 필연적으로 연계된다. 여전히 친수기능에 대해 공원이나, 레저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과 전망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수역의 보존, 나아가 복원의 내용을 워터프론트의 개발에 반영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과 내륙 전체에 걸친 친수공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워터프론트의 개발은 단순히 규모와 시설을 거대화하는 외적인 면에 앞서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환경의 다부문적 특성과 세대간의 공평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친수공간으로서의 워터프론트 개발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워터프론트 개발의 사례가 되는 세계적 모델의 친수공간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그 날을 기대하여 보자.

참고문헌

- 김학소 (2002). “국토 공간 활용의 과제.” 건설저널, 1월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p. 56-58.
- 부동산뱅크 (2005). “청계천 바람타고 강북하천 몸값 상승.” 10월 10일자, <http://neonet.co.kr/novo-rebank/index.neo>.
- 양승모 (2005). 노후항만 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론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여정태 (1997). “워터프론트 개발사례조사연구.” 경기관광연구, 창간호, 경기대학교 관광종합연구소, pp. 35-45.
- 이선호 (2003). 통영시 워터프론트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이영석 (1991). “외국의 워터프론트 재개발사업.” 국토, 제118권, 국토연구원, pp. 19-33.
- 이종훈 (1999). “워터프론트의 특성 및 개발동향.” 해양수산동향, 제12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277-291.
- 한국토지공사 (1997). 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한 친수형 단지 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 한국토지공사 (2005). 환경친화적 신공간 창조 기반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 해양과학교실 (2007). “새로운 생활공간, 워터프론터.” http://www.kordi.re.kr/chongseo/vol6/vol6_09_02.asp (2007년 5월 2일).
- 허재완, 문경원 (1997). “도시와 워터프론트 개발.” 도시정보, 제188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